



◇ 대한항공 관 추락참사 희생자 고 김란
병 씨(미망인 박순엽(67)씨와 2녀
김영란 씨)가 3일 기자회견에 갖고 있다.

“美정부 책임 묻겠다” 관 참사 유족들이 뉴욕서 기자회견

대한항공 관 추락참사 희생자들 가운데 한 명인 고 김란병(당시 72세)씨의 유족들은 3일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『관제소홀과 구조지원 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』이라고 밝혔다.

미망인 박순엽(67·경기 안산)씨와 2녀 김영란(44·브루클린)씨는 『대한항공이 보상금으로 책정한 2억5천만 원도 회사측 부담없이 보험금

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』라며 『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』이라고 밝혔다.

이들은 또 『유족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시신들을 화장하는 등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』며 『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』이라고 말했다.

1998년 4월 6일 (월요일) 세계일보 뉴욕 메트로 세션 [3]